

2020년 4월 1일

교구의 여러분

대주교 마에다 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조치 (제 5 차)

+ 주님의 평화

4월 9일(목) 성 목요일 · 주님 만찬의 철야미사부터 재개 할 예정이었던 공개미사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4월 30일까지 공개미사 및 행사를 중단합니다.
5월 이후의 일정은 4월 23일경, 통지예정입니다.
2. 미사를 비롯해 여러 행사나 강좌 등에 관해, 한 한 연기 또는 중단하도록 하십시오.
3. 성사집행 (세례, 성찬, 고해성사, 병자성사 등)에 관해서는 본당의 주임사제에게 일임합니다.
4. 결혼식과 장례식은 감염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취한 후, 정상적으로 실시해도 좋습니다.
5. 공개미사 중지기간 동안, 오사카 교구의 모든 신자에게 주일미사의 의무를 관면합니다. 각자가 가정에서 성경을 낭독하고, 기도를 하거나 묵주기도를 해주십시오.
6. 오사카 교구에서는 성삼일 전례(성 목요일, 성 금요일, 부활 철야미사)의 인터넷 중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이 정해지면 공지하겠습니다. 또한 도쿄교구에서 주일 미사의 인터넷 중계를 계속 진행 할 예정입니다.
7. 사제들은 성삼일 전례를 3월 19일 바티칸 전례성사 성성의 교령에 따라, 비공개로 다음과 같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a) 신자의 참여가 없더라도 부활절 성주간 전례를 거행 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가 없는 경우도 기본적으로 전례 규정에 따른 식을 행해야 합니다.
- b) 성 목요일 : 본당 사제는 주님 만찬 저녁미사를 공동집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성직자에게 이날 적합한 장소에서 신자의 참여 없이, 미사를 봉헌 할 권한이 올해에 한해, 예외적으로 부여되었습니다. 미사의 끝부분에 이어지는 수난 감실로 향하는 성체행렬은 생략하고, 성체는 성전의 감실에 안치합니다. 미사를 드리는 수 없는 사제는 이날 '저녁기도'를 봉헌합니다 (“성무일도”참조).
- c) 성 금요일 : 본당에서는 각 책임자의 판단 하에, 가능한 한, 주님 수난예식을 거행합니다. 보편지향기도에는 다음의 지향을 추가합니다.
(천주교 중앙 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 받는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자 : 하느님께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병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 주시기를 청합니다.

(잠시 침묵)

사제 : 희망의 원천이신 하느님,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필요한 약과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료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을 질병의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불안과 혼란에 휩싸인 이 세상이, 당신을 통해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d) 부활성야 미사의 “빛의 예식”은 불의 축복을 생략하고, 부활초를 밝히고, 행렬을 생략하고 부활찬가를 시작합니다. 이어 “말씀의 전례”를 실시합니다. 세례예식에 관해서는 “세례서약갱신”만을 실시하고(미사전례서 272 페이지 54참조), "성찬예식"을 계속합니다. 성전에서 행해지는 부활 철야미사

에 참여 할 수 없는 사제는 부활절 미사를 위한 “성무일도” 의 “독서”를 봉헌합니다 (성무일도참조).

가능한 한, 이 알림을 외국인 신자를 포함하여 모든 신자들이 알 수 있도록 주위에 전해주시시오. 또한, 이 소식의 주요 외국어 판을 순차적으로 교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에 게재하므로 참고하십시오.

가톨릭 전례의 중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기념하는 성주간 전례를 공동체와 함께 보낼 수 없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또한 부활절에 세례 예정이었던 분들에게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예식을 본당 신자들과 함께 경축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기도로서 서로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부활절 후 이동되는 사제 및 수도자 여러분은 이임 및 취임 인사를 예전처럼 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각자의 임지에서의 사목에 감사 드리며, 신임 지역에서의 활약을 기원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치료 및 간호에 해당하는 의료 관계자와 신자들을 돌보는 교회 관계자,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 드리며, 또한 이 재앙이 하루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 드리며, 성주간을 거룩하게 보내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상